

# 성경 예언 해설집 <19회>

## 음식과 수행

### 여름 보양식 '복숭아'

여름 보양식이라 불리는 이유는 '아스파르트산' 때문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미 복숭아는 삼국시대에 널리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과수원에서 길러지는 만큼 다양한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복숭아 음료를 마시면 불로장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상향을 뜻하는 도원경, 무릉도원에 빠지지 않고 복숭아가 들어가며, 천상의 반도원(蟠桃園)을 지키던 손오공이 몰래 먹어 불로불사가 된 과일 역시 복숭아다.

활성산소를 억제한다. 또한, 타닌과 마그네슘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게 한다. 복숭아를 먹으면 미인이 된다는 옛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복숭아의 효능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소화 촉진

중간 크기의 복숭아에는 약2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불용성 식이섬유의 경우 대변의 양을 늘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돕는다. 또한, 복숭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어서 장에 사는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 둘째, 혈관 건강

복숭아 속의 베타민다는 항산화제로 유명하며 면역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관을 넓힌다. 즉, 혈액이 내부에서 응고되는 것을 막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다.

#### 셋째, 나트륨 균형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작은 복숭아 한 개에는 247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어서 염분 함량이 높은 식단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다.

#### 넷째, 수면에 좋음

복숭아의 아미그달린은 신경을 안정시켜 불면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또한,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구연산은 하루 중 있었던 스트레스 해소하여 복숭아를 저녁에 섭취하면 불면증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복숭아지만 다른 과일보다 과당 함량이 높고 포도당(FODMAP) 식품으로 구분되어 장 흡수가 잘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복숭아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이므로 의심이 갈 경우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승우 기자



이처럼 복숭아는 대표적인 '불로장생(不老長生)'의 과일로 꼽혀 왔다.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소재로 구성된 '십장생도'에 거북, 사슴, 소나무, 산, 구름, 불로초 등과 함께 복숭아가 그려져 있는 것만 봐도 우리 선조들이 복숭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동의보감에도 잎과 꽃, 열매, 씨, 나무의 진까지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귀한 약재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복숭아씨인 도인(桃仁)은 맛이 쓰고 달며 독이 없으며 복숭아꽃은 여성의 냉증 치료에, 말린 복숭아 잎은 류마티즘성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영양 측면에서 보면 각종 비타민과 유기산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또한, 땀을 흘려 부족한 칼륨과 수분을 보충해주고 당분 공급으로 더위에 지친 신체에 활력을 주어 뉘 활동 회복을 돕기 때문에 여름철에 수험생과 아린이, 노약자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복숭아가 여름의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아스파르트산' 때문이다. 아스파르트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간 해독을 도와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며 소화기 계통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개선한다.

복숭아에는 비타민A와 비타민C, 그리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주변에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 다니엘

### 꿈에 본 성도의 나라

본문(다니엘 2장)

왕께서 큰 신상(神像)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반은 철이요 반은 진흙이 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쓰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트리매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중략)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쓰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대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위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재시도다.(하략)

### 해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이 1차 유대 왕국 침공시 포로되어 바벨론에 잡혀온 왕족의 한 사람으로 신앙이 독실하고 지혜와 총명이 풍부한 사람으로 외국 사람으로서 바벨론 왕국의 총리로 등극하여 국사를 총괄한 사람이나 옛적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등용된 것과 같이 정치인이요 애국자로서 동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였으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으로 인하여 영광을 안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실현시킨 사실이 있음같이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이진자가 출현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인류 역사의 과정을 알게 하였으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애굽의 바로 왕의 꿈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상에 관한 해석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누구나 알 수 있으나 우상을 친 돌에 관한

여 지금까지 예수가 성경 해석은 예수를 돌로 해석하고 예수가 재림하여 세상을 멸하는 것을 돌로 해석하여 우상 세계는 예수가 다시 오면 망한다고 믿고 있다.

금, 은, 동, 철, 네 나라는 BC 6세기부터 AD 4세기까지 강대국으로 중동과 지중해 연안을 지배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이스, 로마 제국이요 열 발가락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다. 거대한 신상은 마귀 사상으로 형성된 인류의 정치 문화로 인류가 영원히 보존하고 유지,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철과 진흙이 합할 수 없듯이 사상의 분열로 싸울 것을 알게 하였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뜬 돌이 날아와 우상을 친니 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신상이 파괴되어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다고 하였으니 인류가 신봉한 종교와 학문이 폐해되고 새 학문, 새 종교, 영성의 진리가 나오므로써 사람의 종교와 학문은 소멸되므로 바람에 날려가듯 점차 소멸되는 것이다.

신상을 쳐서 멸하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말하듯이 예수가 도둑같이 출현히 강림하면 세상은 순식간에 망하고 예수의 신도들은 공중으로 승천하여 하늘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요 우상이 존재한 지상의 세계가 성도의 나라, 지상천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본문은 명시하였다. 돌이 우상을 치는 것은 진리로 비진리를 깨는 것이니 이진자에게 돌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주었으니 철장이 신상을 파괴하고 진리가 온 세계에 전파됨으로써 우상을 친 돌은 천하에 가득하다고 하였다. 우상을 파하고 세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존할 것을 언약하였으니 연한 싹으로 시작한 성도의 나라가 점차 발전하여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 '철십일'에 대하여

본 문(단 9:24-27)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철십이

레(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쳐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永續)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異像)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重建)되어 거리와 해자(壕子)가 이를 것이며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엄몰(淹沒)될 갈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게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 지리라 하였나니라.

### 해설

다니엘이 이국 땅에서 조국의 독립과, 패하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받은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초월하여 승리자 메시야가 인할 것까지 알게 하였다. 본문 내용은 유대인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감람나무 선지가 올 때까지의 과정을 말한 것이다. 예수가 신학자들이 2천년 동안 본문 말씀의 명쾌한 해답을 찾으려고 씨름을 하고 있으나 풀지를 못하고 덮어두고 있는 대목이요, 예수를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짝을 맞추려 하니 안 되는 것이다. 본문의 핵심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증거하기 위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큰 신상

## 彌勒佛出世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45>

한민족은 고대 이스라엘민족이다

아담과 해와가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만물이 점점 마귀의 형상으로 변해간 것이다. 이진자가 그러한 마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놀라운 천지개벽의 역사를 1981년부터 시작하였다.

성경에 구리 뱀을 바라보는 자는 병이 나았다고 하였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는 죄의 상징이므로 마지막 때에는 구세주가 죄인의 탈을 쓰고 나와서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 적국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활동하려면 적군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마귀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의 말을 하며 죄인의 친구가 되지 않고서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45>



단(Dan)의 독수리 와당

정적인 근거는 고조선 유물의 <단군의 독수리 와당>에 새겨져 있는 고대 히브리어(올드네게브 문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자는 사사(士師)시대의 초기 문자이다. 상단 사진은 단(Dan)의 독수리 와당이며, 올드네게브(Old Neggev) 문자로 새겨진 문양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독수리와 같은 저 단군의 백성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단(Dan)의 독수리 와당은 단지파의 백

성들을 독수리보다 비유한 와당으로서 고조선의 수도 부근(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되었으며, 또한 이 와당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단군의 백성(단지파 백성)이 한반도에 도착하여 정착한다는 뜻이다.

####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동일한 풍습

- 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당시 양(羊)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액(厄)을 면했다(레위기24:6)고 해서 유월절(the Passover) 풍습으로 대대로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민족 가운데 단 민족이 이스라엘 소라 성읍에서 동족으로 이주하여 한반도에 와보니 양이 없으므로 양의 피 색깔과 비슷한 팔죽을 썬서 동짓날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유월절(the Passover) 풍습이 변모된 것이다.
- ② 제사의식에서도 두 민족은 높은 산에서 돌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다(창세기22장, 라민족은 이런 풍습이 없다).또 단민족이 흰 두루마기를 즐겨 입어 백의민족으로 불렸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흰옷 입기를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창세기37:34). 기계형통적인 측면을 보면 두 민족 모두 분처 장자가 상속을 하였다(창세기17:19).
- ③ 이스라엘에서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고 사람이 죽으면 굶은 배움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곡(哭)을 하는데(창세기37:34), 한민족의 풍속과 똑 같다.
- ④ 음식을 살펴보면 단민족은 향어회를 즐겨 먹었고 첫 음식을 신성시 여겼다. 그리고 추수감사제를 지내며 부추김치와 매운 음식을 즐겨 먹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잉어를 먹었고 첫 열매, 첫째 짐승을 신성시 여겼고 부추김치와 매운 음식을 즐겨 먹었다(민수기9장).
- ⑤ 한민족의 고대 언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상 아브라함 시대부터 사용하던 고대 히브리어이다. 그 예로 아직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용어 중 애기, 애미, 애미 등의 의미가 같고 실로, 고시례, 꼭두각시 등의 용어가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아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明鍾